

# 영화교육의 통섭방법론

## Convergence Methodology in Film Education

육정학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Jung-Hak Yook(cineyjh@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영화 <변호인>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학제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그 서술에 따라 어떻게 통섭하여 교육할 것인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변호인>을 텍스트로 정한 이유는 이 영화가 허구라고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것과 한때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국민적 관심이 있는 영화라는 것, 그리고 재판의 과정을 통해 양심과 법, 도덕의 가치를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역사적, 정치적 상황을 통해 역사와 정치를 알 수 있게 하며,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현 사회의 다양한 군상들에 대해 답론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등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변호인>의 서사 분석을 통해 문학(국어)을 교육할 수 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으로 정치와 권력, 소시민, 혹은 약자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정의감 등을 법정 이야기로 엮어 흥미롭게 진행됨으로 이를 통해 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둘째, 역사와 정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영화는 정치적 알레고리를 담론으로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함께 전개됨으로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셋째, 법과 도덕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기점으로 그에 타당한 법과 도덕을 담론으로 형성하여 교육할 수 있다. 넷째,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작품분석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인물분석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인간관계나 삶의 질을 결정함으로 이를 통해 올바른 인간관을 교육할 수 있다.

■ 중심어 : | 영화 | 변호인 | 영화교육 | 통섭 | 교육방법론 |

###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some academic subjects based on the film, <Attorney> and accordingly investigate how they are to be converged and then educate individuals. The reasons why <Attorney> should be chosen as a text are as follows: this film is said to be fictional, but based on historical fact. Then, it attracts national attention. Third, it induces the spectators to judge the value of conscience, law, and morals, through the trial process, for themselves and leads them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ditions at the time. Last, but not least, it contributes to the discourse on various type of men in contemporary days, by dint of analysis on the main character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listed below: most of all, literature education(Korean language) could be proceeded with the help of epic analysis on <Attorney>. Secondly, considering the film develops the story using political allegory as discussion, along with the historic situation in those days, learning on history and politics could be made possible. Third, the film could be undoubtedly used to conduct the education of law and morality, forming the argument on required law and morals corresponding with ideological circumstance. Finally, education on film analysis could be conducted, by means of examination of the main characters. The analysis on the major characters helps to teach what it would be like for people to become the right ones, by both representing the members of society and determining the quality of life and relationship.

■ keyword : | the Film | Attorney | Film Education | Convergence | Teaching Methodology |

## I. 서론

학문함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추구하는 인생의 본질을 해명할 수 있는 다차원의 지향이 담긴 복잡한 층위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의 전통에서 학문함(爲學)과 권학(勸學)의 문제는 위인지학(爲人之學)이나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때로는 치인지학(治人之學)으로 혹은 성인지학(聖人之學)이나 성황지학(聖皇之學) 등의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1]. 이러한 학문함의 본질적 논의는 21세기 들어 학문의 경향이 융복합학으로 변화됨으로써 하나의 학문이 여러 장르의 학문으로 통섭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화는 종합예술학 입에도 불구하고 예술, 오락적 기능을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적 문제는 소홀히 다뤄졌다. 고부가 가치를 생성하는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둔 영화제작에 큰 비중을 두었고, 따라서 대학에서의 영화교육 역시 주로 상업 및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실습 방식을 고수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통섭이란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부딪치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러한 과정은 예상외의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또한 통섭에 있어서 다른 단어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점은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려면 답이 필요하듯이 영역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통섭은 여러 나물과 양념을 넣어 비빔 비빔밥의 수준이 아니라 “발효가 되어서 전혀 새로운 맛이 나는 김치나 장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2]. 그러나 통섭이란 용어는 학문 그 자체의 내용과 학문방법론, 그리고 교육제도에 대한 동시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문 경향의 핵심은 과학적 사유와 방법론에 입각하여 객관적 세계를 분석해 내고, 이를 통해 인문, 사회적 영역까지도 설명해냄으로써 통합 학문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과학적 환원주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다[3].

영화는 인문, 철학, 예술(음악, 미술, 연극, 카메라 등), 과학, 교육 등을 시킬 수 있는 종합교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의 영화를 봄으로써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학제간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통섭이 단지 타장르의 학문을 섞는 것만이 아니고 통합학문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영화야말로 통섭학문으로 최적격이라는 생각이다. 통섭의 학문방법론은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lson)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그의 저서인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가 2005년 “통섭: 지식의 대통합”이란 책명으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통합학문에 대한 논의는 한국학계에서 매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윌슨에 의하면 이 용어는 윌리엄 휴얼(William Whewell)이 1840년에 ‘귀납적 과학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설명의 공동기반을 만들기 위해 분야를 가로지르는 사실들과 사실에 기반한 이론을 연결함으로써 지식을 통합하는 것을 뜻한다[4].

본 연구는 영화교육에 있어서 통섭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영화 <변호인>을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즉 <변호인> 속에 들어있는 학문적 영역을 살펴보고 이를 통섭하여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 보고자 한 것이다. 통섭이 “큰 줄기를 잡다”라는 의미와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사물에 널리 통하는 원리로 학문의 큰 줄기를 잡으려 했던”[5] 것이라면 그러한 의도를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화교육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영화를 활용한 역사교육에 대한 연구[6][7],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8], 수학수업에 관한 연구[9], 영화를 활용한 어학 및 글쓰기에 관한 연구[10][11], 영화를 활용한 간호사 의료에 관한 연구[12][13] 그리고 영화를 활용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14][15] 등이 선행연구 되었지만 통섭하여 교육으로 연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화는 종합예술로 그 속에는 통섭 학문으로서의 과제가 많이 들어있다. 융합과 달리 통섭은 합쳐지는 과정에서 원래 구성 성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성을 잘 섞은 새로운 조합의 실체를 탄생[16]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 <변호인>을 텍스트로 사용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학제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그 서술에 따라 어떻게 통섭하여 교육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자 한다.

## II. 영화 <변호인>을 활용한 통섭 교육

본 연구에서 영화 <변호인>을 텍스트로 정한 이유는 첫째, 이 영화가 허구라고 하지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것과 둘째, 이미 작고하셨지만 한때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것, 셋째, 재판의 과정을 통해 양심과 법, 도덕의 가치를 각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넷째, 끊임없는 정치적 상황(부마항쟁, 관주민주화 항쟁, 용공조작사건 등)을 통해 정치가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게 하고 다섯째, 천만 이상의 관객을 끌어 모은 이 영화를 통해 영화적 담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화는 서사를 포함하여 역사, 정치, 도덕, 그리고 영화 속 주요 인물들에 대해 담론을 구성함으로써 전체를 아우르는 통섭의 교육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음의 분석은 영화 <변호인>을 통해 무엇을 통섭하여 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 자료들이다.

### 1. 영화 <변호인>의 서사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은 2013년 12월19일 개봉한 영화로 천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를 서사한 것으로, 시나리오 맨 앞장에 ‘본 시나리오는 실제인물과 사건에서 그 모티브를 구하였으나 명백한 픽션임을 밝힙니다.’ 라고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부림사건’을 영화한 것이다. 영화 속 내용들을 보면 정치와 권력, 소시민, 혹은 약자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정의감 등을 법정 이야기로 엮어 흥미롭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변호인>의 서사를 3장으로 분석해 본 것이다 [17].

#### 1) 1장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백 없고, 돈 없고, 가방 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이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탁월한 사업수완으로 승승장구하

며 부산에서 제일 잘나가는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다. 대기업의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으며 전국구 변호사 데뷔를 코 앞에 둔 송변호사는 어느날 우연히 7년 전 밥값 신세를 지며 정을 쌓은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가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국밥집 아줌마 순애(김영애)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 구치소 면회만이라도 도와주겠다고 나선 송변호사는 그곳에서 마주한 진우의 민지 못할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송변호사는 모두가 회피하기 바빴던 사건의 변호를 맡기로 결심하고 사건의 본질에 접근한다.

#### 2) 2장

사건의 본질은 80년대 혼란스러웠던 정치상황을 복한과 연계된 시국사범으로 몰아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었다. 그 와중에 고문의 흔적을 찾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고 의의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송우석 변호사, 그는 검사가 핵심증거로 제출한 피고들의 자백에 대해서도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임을 밝히고 피고들이 돌려 읽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서적에 대해서도 영국의외교부가 보내온 편지를 법정에서 낭독하며 그 책은 아주 좋은 책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읽히기를 바라는 양서임을 밝힌다. “최소한 진우만큼은 무죄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건의 고문경감인 차동령(곽도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송우석은 마지막 재판에서 “국가가 무엇이나”고 따져 묻는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바로 국민이다!”라고 외치지만 결국 진우는 2년 후 가석방을 조건으로 3년의 선고를 받았다.

#### 3) 3장

진우의 재판은 끝났지만 영화는 이어진다. 화면이 법정으로 바뀌고 변호인 송우석은 피고인으로 서 있다. 송우석은 1987년 경찰의 고문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박종철군 추모행사에 참석했다가 실정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 송우석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의 변론을 위해 참석한 변호인들의 명

단을 제출한 후 당일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명단에 오른 변호인들을 호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영화는 송우석의 변호를 위해 법정에서 참석한 부산지역 총 142명의 개업변호사 중 99명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호명되며 끝난다.

일반적으로 서사는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글의 양식으로 인간 행위와 관련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언어적 재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양식으로서의 서사는 이러한 사실과 경험을 다루는 경험적 서사가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허구적 서사를 말한다.<sup>1)</sup>

따라서 텍스트가 영화라면 그 영화의 서사를 읽어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영화 읽기의 기본을 다지는 것으로 국어과목의 읽기 제재로 선택되어 질 수 있다. 즉 한편의 영화작품을 통해 무엇인가를 비판하거나 수용하거나 하는 ‘영화를 읽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변호인>의 서사를 중심으로 전체 3장으로 나누었다면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또 자기 방식대로 서사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맞는 창의적 상상력으로 기존의 사건을 변형시키거나 새롭게 형상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영화는 문학과와 친연성이 크고, 같은 서사물이므로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흔할 뿐 아니라 작품성이 높은 것이 많아 읽기 제재로 적절하다는 점에서 미디어 읽기의 시발점으로 삼기에 적합하다[18].

1장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과 꿈을 표현하고 있다. 뺨 없고,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주인공 송우석이 젊은 시절 일용 노동자로 일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은 누구나 꿈 꿀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세무변호사로 활약하여 돈도 많이 벌게 되어 집도 사고 요트도 사고 어느 정도 속물이 되어가던 중에 가난했던 시절 국밥을 먹던 주인집 아들 진우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

건이 발생한다. 그리고 구치소 면회를 간 송우석은 폭력을 당한 진우의 모습에 놀라 이 사건을 변호하기로 결심한다.

1장은 일상- 꿈(희망)- 사건1(진우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됨)-사건2(폭력의 상처를 보고 변호하기로 마음먹음)의 과정을 거쳐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립사건의 본질적 의미로 가깝게 다가간다.

2장에서는 권력, 즉 공권력의 폭력이 한 개인을 어떻게 억압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공권력과 힘겹게 싸우는 변호사와의 대립이 전개된다.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용공조작사건의 의미를 폭로하고 폭로된 사건의 의미망을 순차적으로 좁혀가면서 결국 역사와 국가 그리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며 진우가 무죄임을 입증한다.

3장은 송우석은 박종철 추모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실정법 위반범이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자신을 변호해 주겠다고 찾아 온 변호인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것을 느끼며 감격에 젖어 조용히 웃고 있는데 그 위로 엔딩 타이틀이 올라간다. 이 3장은 핵심적인 의미단락으로 지금까지의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반복되는 공권력과 거기에 맞선 많은 변호인들이 법정으로 몰임으로써 궁정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 2. 역사와 정치

영화 <변호인>은 정치적 관념의 알레고리를 담론으로 하고 있다. 영화의 시작은 부산 구치소 방에 갇힌 송우석이 법정출두를 하기위해 버스를 타고 가면서 플래시 백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리고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 영상은 자료화면과 자료 해설 자막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시대를 연이어 보여준다. 1979년 10. 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1979년 12. 12 사태, 1980년 5. 17 쿠데타 (전국 비상계엄확대조치), 1980년 5. 18 광주민주항쟁, 1980년 9월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79년 10. 16 부마항쟁에서 1980년 5. 18 광주항쟁을 거쳐 전두환 대통령 취임까지 총 6개의 커다란 정치적 상황이 자료화면과 함께 2분여 정도 보여 진다.

결국 <변호인>은 1981년 3월에 출범한 제5공화국의

1) 국어교과는 도구교과적 성격이 강한 과목이므로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토의, 토론 등 복합적 언어능력을 길러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대학에서는 영화제재를 국어교과에 수용하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이 집권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 한 것이다. 즉 부산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 교사, 회사원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 및 고문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 단체 찬양 및 고무’로 몰아간 것이었다. 이렇듯 <변호인>은 80년대 초를 진후한 한국의 역사, 엄밀히 말하자면 정치 역사를 영화로 만든 정치영화인 것이다. 영화 속에서 역사와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서브플롯(Subplot)을 통해서라도 표현하고 있는 영화를 ‘역사영화’라 하며, 영화 전체를 통해 정치적 발언력을 갖고 역사적 문제들에 대한 주제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정치영화’[19]라 한다면 영화 <변호인>은 지나온 과거의 역사와 정치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밥집 아들 진우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의해 희생된 젊은이였다.

영화 속 변호인인 송우석은 진우가 무죄임을 밝히는 과정에서 정치와 권력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한다. 역사의 가해자인 진우의 공판과정에서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의 이해,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정치적 장치, 고문 폭력 등이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게 한다. 이는 비록 지난간 사건들이었지만 현재에 대한 환유로 볼 수 있으며 변호인인 송우석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가치로 귀결된다.

### 3. 법과 도덕

최근 법과 도덕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법정영화로 <도가니>, <의뢰인>, <부러진 화살> 그리고 본 연구의 제제인 <변호인>등이 있다. 이들 법정영화는 대부분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로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되어 재미와 함께 결론의 궁금함을 더해 줌으로써 시종일관 관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변호인> 역시 국가권력을 가진 힘있는 세력이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 대학생이던 진우가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가 되어 구치소에 갇혔

다. 그런 진우를 돕기 위해 구치소로 접견을 간 송우석은 면회가 안 된다는 말에 흥분하며 따진다.

우석    접견권 침해는 위법인 거 모릅니까? 요 구치소는 형법 우에 있고 헌법 우에 있습니까?  
 교도관    아, 거 참 일반 접견실 수리중이라니까요.  
 우석    그라모 특별 접견실에서 보모 되겠네. 거도 수리중입니까? 야... 요 구치소에 당신네들이 들어가겠네! 내 가서 확인해보고 아이모 당신부터 모조리 고소해버릴꺼니까..

하버마스<sup>2)</sup>는 실정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법 공동체를 넘어 보편적 타당성까지 주장하는 도덕적 원칙과 최소한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20]고 함으로써 실천적 담론의 출발점을 도덕적 담론에서 시작하였다.

‘도덕적’이라는 말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공유된 이해체계에 근거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나름의 해석과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이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특정한 방식에 따라서 사고하고, 느끼고, 행위하는 것, 즉 도덕적 또는 비도덕적 가치가 개입되는 것은 이야기 언어와 같은 도덕적 담론의 매개를 통해서라고 보았다[21].

우석은 당연히 면회가 되어야 할 진우의 면회가 허락되지 않자 접견권 침해, 위법, 형법, 헌법, 고소 등의 법적 용어를 쏟아낸다. 여기서 우리는 법과 도덕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윤리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변호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하는 정의적 측면도 거론되어 진다. 그리고 이 정의적인 측면은 다시 도덕으로 연결되어 일반 서민들의 삶이 어떤 특정 집권의 이익에 따라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법과 도덕이라는 거대 담론 하에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정의 등을 윤리적-정치적 관점에서 제기하고 학습할 수 있다고 본다.

2) 하버마스(Habermas)는 ‘담론원리(diskursprinzip)’를 정식화함으로써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로, 그는 법과 도덕, 윤리와 의 관계, 그리고 법과 정치와의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담론원리의 이상적 내용이 법체계의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인물이다.

#### 4. 영화 속 주요인물(캐릭터) 분석

영화 속 인물들은 대부분 실제로 있음직한 현실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들이 영화 속에서 행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등장인물은 영화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이야기를 끌어 나가며, 이야기 속 성격을 묘사함으로써 인물의 연령과 학벌, 배경, 성격 등을 판단하게 한다.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리몬-캐넌은 '직접적인 정의(direct definition)', '간접적 소개(indirect presentation)'로 제시한다. 간접적 인물 소개에는 행동, 말, 외모, 환경으로 나타낼 수 있다[22]. 포웰은 부스(Booth)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내재된 저자가 내재된 독자들에게 등장인물에 대한 것을 들려주거나(telling), 이야기 자체 내에서 등장인물이 어떠함을 보여줌(showing)으로써 등장인물을 묘사할 수 있다”고 했다.<sup>3)</sup>

이러한 영화 속 등장인물의 묘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군상을 표현함으로써 인간관계 형성과 삶의 다양성, 그리고 삶의 질마저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영화 <변호인>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은 대략 4명 정도로 축약할 수 있다.

##### 1) 변호인 -송우석

송우석은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가난하고 돈도 없어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고, 그 후 가난할 적 밥을 먹여 준 밥집 아줌마 아들의 억울한 일에 사회 정의감을 갖고 적극 변호에 나서으로써 인정과 의리의 정의로운 인물로 묘사된다. 검찰이나 경찰과 대립하면서 각각의 사안에 대해 지적인 연구와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며 정의롭게 사회의 진실을 밝혀나간다. 또한 변호사로서 뛰어난 언술과 능력으로 국가가 무엇이고 인권이 무엇인지

를 따져 진우가 무죄임을 입증해냄으로써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 준다.

차동영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우석      국가? 증인이 말하는 그 국가란 게 대체 뭘니까?  
차동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뭘지도 몰라요?  
우석      아닙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란 법의 개념도 모르면서, 국가보안문제라고 마구 내질러서 국가인 국민을 탄압하고 법을 짓밟았잖소? 증인이 말하는 국가란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탈한 일부 군인들... 그 사람들 아니오?

흔히 사회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상적인 정의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사회에 관한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 세계로부터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에 관한 논의이다[23].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인 송우석을 통하여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의 원리나 원칙,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송우석은 영웅으로서의 모습도 보인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박종철의 추모행사와 관련하여 재판관을 받게 되는데 그를 변호하러 온 변호사의 수가 무려 20여명이 넘었다는 것이다.

판사, 변호인 명부를 들여다본다. 노안이 있는지 돋보기안경을 꺼내 쓰고 명부를 다시 본다. 그러고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얼굴로 김상필을 쳐다본다.

판사2    (명부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김상필    (뿌듯한 얼굴로 피덕이며) 예. 그래서 확인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우석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의연하게 앉아 있다. 판사, 난감한 표정으로 우석을 보다 결국 변호인단 명부를 든다.

판사2    (호명하려다 물 한 잔 마시고) 그럼 호명합니다. 김상필 변호사.

김상필    (일어선 채) 예.

판사2    이흥기 변호사.

3) 들려줌(telling)의 기술은 신뢰할 만한 해설자로 하여금 독자에게 직접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여줌(showing)은 내재된 자가 내재된 독자에게 등장인물 자신의 견해나 그들에 대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진술을 통해서 등장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보여줌의 기술은 들려줌의 기술보다 복잡하지만 매우 흥미롭고,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에 대한 본문의 다양한 증거들을 서로 비교하며 평가하게 한다. 마크 알렌 포웰, 서사 비평이란 무엇인가?, pp.97-98.

이흥기 (일어나며) 예.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  
 판사2 문재호 변호사.  
 문재호 (일어나며) 예. (역시 서 있다.)  
 판사2 (작게 한숨 쉬더니) 이하 변호사 호칭은 뺐니다. 박병호.

이러한 영웅적인 표현은 일반 국민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대중과 사회, 개인가치와 사회가치, 그리고 이상과 현실을 매개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그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 2) 엄마 -순애

진우의 엄마인 순애는 국밥집을 하고 있다. 7년 전 밥값이 없어 도망쳤던 우석이 훗날 밥값을 들고 찾아오자 기어이 받지 않는 인정스런 엄마다. 그리고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집 앞에 서서 내내 아들을 기다리는 한국적 정서의 엄마다. 비록 남편이 없지만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 온 이웃집 아줌마 같은 진우 엄마가 아들을 위해 일상을 팽개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 나선다. 반쯤 닳이 나간 순애 앞에 집배원은 등기편지를 주고 가고, 순애는 부들 부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은 뒤 우석의 사무실로 찾아간다.

순애 잊저녁에 거기 왔다.  
 우석 (살펴보며) 재판 통지서네예. 부산 구치소 있고... 재판이... (놀란 듯) 모래예?  
 순애 (겨우 울음을 참으며) 우리 진우 좀 불라고 구치소 뛰 갔더마... 면회를 안 시키준단다. 원래 법이 그렇다매?  
 우석 무슨 소립니까? 보호자 접견권 방해는 위법입니다.  
 순애 (귀가 번쩍) 그라모 니랑 가모 내 진우 볼 수 있나?

아들 진우가 반정부 조직, 즉 빨갱이로 구치소에 갇히자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대화이다. 순애는 끝내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감 있고 강한 엄마의 표상이다. 강하지만 따뜻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적 어머니인 것이다.

## 3) 아들-진우

어느 날 우석이 친구 윤택 등 동창들과 국밥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TV뉴스를 보다 싸움이 난다. 가게가 엉망이 되고 진우는 이러한 상황을 정리하고자 청소를 한다. 순애는 우석의 터진 얼굴에 약(머큐롬)을 발라준다. 다음의 대화는 진우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내 준다.

진우는 화가 안 풀리는지 일부러 큰소리로 쓰러진 의자며 탁자를 일으켜 세운다.

우석 (할 말 없어서) 나는... 데모 안 하재?  
 진우 (대답도 안 한다.)  
 우석 어무이 이래 고생해가 니 공부 시키는데 데모하모, 니 천벌 받는대이. 알긔나?  
 진우 (여전히 대답이 없다.)  
 우석 (괜히 민망해져서) 이기 어른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노?  
 진우 데모하는 기 천벌 받으모 데모하게 만든 사람들은 무신 벌 받는대요?  
 우석 뭐라카노? 이자속이. 그거 다투고 일로와 봐라.  
 진우 여 어질러 논 거 청소해야 되거든요.  
 우석 (진우에게 가려다가 뭔가 밟고 휘청하며 미끄러 넘어진다. 아프고 가오 상하지만 참는다.) 데모해가 바뀔 세상이모 내가 벌써 열 두 번도 더 바꿨다. 세상이 그래 말랑말랑한 줄 알아? 계란 아무리 던지봐라, 바위가 뽀사지나.  
 진우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은 기라고, 바위는 뽀사져서 모래가 되도, 계란은 깨나서 그 바위를 넘는다, 그카는 얘기는 몰라예?!  
 우석 계란 뭐? 이 자속 이기!! 니 지금 내가 니 가게 이래 뵈다고 꼬라지 피는 기가?  
 진우 (대답 없이 청소만 한다.)

위 대사를 보면, ‘데모하는 사람들과 데모하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살은 거라는 말’은 아들의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준다. 대학생으로 약학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가르치다 국보법위반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진우는 무엇이 선이고 선을 위하여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고 언

어터지는 과정에서 삶은 파괴되고 심한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러한 두려움은 내면적 인식 변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 재판의 과정을 통해 떨쳐버리게 되고 변호사인 송우석과 함께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혀 나간다.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사실은 밝혀야 한다는 신념하에 그가 가졌던 가치관의 세계를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 4) 경찰-차동영

차동영은 수직적 시각으로 사회를 보는 경찰공무원이다. 모든 것을 계급적으로 구분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시키는 일은 그대로 실행해 옮긴다.

보안사 내 술 한 잔 받지. (차동영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잔을 받는다) 이번 건 차경감이 수고 많았다며. 잘했어.

차동영 (술잔 받아 고개 돌려 주욱 들이키고는 잔 돌려주고 바로 술 따른다)

보안사 (술 받아 바로 마시더니) 치안감님! (술병 들어 치안감에게 권한다) 거 부탁 하나 합시다. 우리 차경감 말 이야. 부산 내려가서 거기도 좀 하나 해줘야겠어.

치안감 (술잔 받으며) 아이고 예! 나라에서 필요하시다는데 당연히 내드려야죠.

보안사 (술병 든 채 차에게 오라고 손짓하자 차동영 다가와 술잔을 받는다) 부산! 중요한 데야. 전임 대통령 돌아가시게 된 원인 제공 도시라고. (차경감 또 원샷하고 다시 술 따라 올린다. 받으며) 작년 5월에 말야. 원래는 부마사태도 있고 해서 우리는 부산 쳐다보고 있었거든. 근데 엉뚱하게 광주에서 일이 터진 거야.

차동영 (본다)

보안사 (검사장에게 술병 권하며) 자 검찰에선 누가 맡으면 되겠소?

검사장 강형철이라고 벌써 이번 서독련 건 자료 넘겨받아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안사 (차동영에게 다시 술병 내민다) 차경감! (눈빛 세우며) 부산에서 광주 같은 일 벌어지지 않으려면 차경감이 자~알 해야 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차동영 (비장하게) 옹!

위 대사에서 보면 차동영은 죄없는 학생을 잡아 고문하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에 적극 가담하여 출세를 하고자 하는 비열한 경찰로 이를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중성마저 띠고 있다. 영화 <변호인>은 차동영을 통하여 국가가 통치의 편리를 위하여 음모를 어떻게 꾸미고 죄 없는 대학생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음모는 영화의 네러티브로도 많이 쓰이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해석의 한 방법으로 이용[24]되기도 함을 볼 때, 음모에 가담하고 실행에 앞장 선 차동영은 그 당시 한국사회의 권력상을 보여 주고 있다. 단순한 책읽기 모임의 학생이었던 대학생들을 잡아와 고문하고, 고문의 흔적을 없애고, 모른다고 잡아떼고, 나아가 양심에 따라 증언하는 윤중위 마저도 무단 복귀, 허위진술 등으로 옳아 매어 잡아와 버리는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앞잡이인 것이다.

본 장에서는 영화<변호인>에 나오는 주요 인물4명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들은 영화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중요 인물로 이들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군상을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III. 영화 <변호인>의 통섭교육 방법론

지금까지 영화 <변호인>을 대상으로 서사와 역사, 정치, 그리고 법과 도덕, 주요인물의 분석을 통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군상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영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분석은 아니다. 영화의 표현적 분석을 통한 미적 탐구라든지 혹은 과학과 결합해 조명이나 카메라에 대해 연구한다든지, 그 외 사운드(음악)나 배경(미술)등의 교육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방법론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통섭하여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 그 중 일부만 예로서 분석한 것이다.

인문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성과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 삶의 철학과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합리적 관점 등,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가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25]. 그리고 한편의 영화 속에는 이러한 인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들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화학을 교육할 때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집중



해 왔다. 당연히 영화를 교육한다고 하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은 영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맞겠지만 영화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영화를 활용한 이러한 통섭교육이 전인적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본다.

다음의 [그림 1]은 영화 <변호인>을 텍스트로 하여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들을 STEAM형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의 융합을 추구한 미국과학재단(NSF)에 기원을 둔 것으로 STEM에 예술(Art)를 추가하여 교과간의 상호융합적인 접근을 강조한 교육 프로그램이다[26]. Yakman(2010)은 STEAM이 STEM과 같이 통합교육적 성격을 지니며 동시에 예술성을 추구한다고 말한다[27].

아래 [그림 1]은 영화 <변호인>을 텍스트로 하여 STEAM형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그림 2]는 통섭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II장에서 분석한 자료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하는 통섭교육의 연결망을 설명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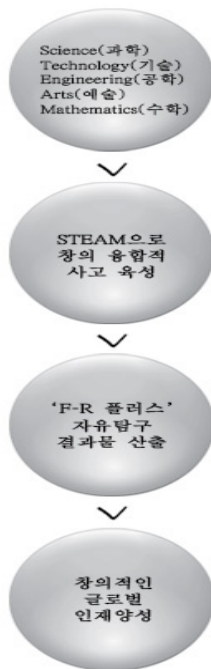


그림 1. STEAM형의 교수 학습 프로그램 과정

[그림 2]의 통섭교육의 연결망은 영화 <변호인> 뿐만 아니라 어떤 영화라도 통섭교육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영화는 서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서사의 분석을 통해 영화 속의 교육적 요소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사의 구성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사건의 역사와 배경을 분석하고 인물들의 캐릭터를 분석한 뒤 이를 STEAM 교수 학습 프로그램에 맞게 설계하여 교육한다면 영화교육의 통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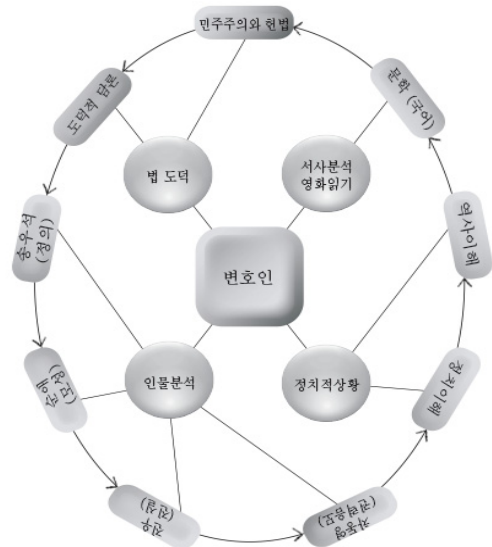


그림 2. 영화 <변호인>의 통섭교육의 연결망

#### IV. 결론

영화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의 형태이며 다른 예술들과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동시에 또한 서로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도 하는 새로운 예술이다[28]라는 명제에서 보듯이 영화교육은 전인적 인재양성, 혹은 창의적 인재양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라고 본다.

송복 교수는 문학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쌓을 수 있고, 역사를 통하여 통찰력과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철학을 통하여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29]. 영화 <변호인> 속에는 이러

한 문학, 역사, 가치관이 포함된 철학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교과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미래사회의 교육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통섭’이라는 학문 방법론에 묶어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변호인>의 서사 분석을 통해 문학(국어)을 교육할 수 있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으로 정치와 권력, 소시민, 혹은 약자의 아픔과 분노, 그리고 정의감 등을 법정 이야기로 엮어 흥미롭게 진행됨으로 이를 통해 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둘째, 역사와 정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영화는 정치적 알레고리를 담론으로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함께 전개됨으로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다.

셋째, 법과 도덕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상황을 기점으로 그에 타당한 법과 도덕을 담론으로 형성하여 교육할 수 있다.

넷째,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작품분석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인물분석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인간관계나 삶의 질을 결정함으로 이를 통해 올바른 인간관을 교육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영화 <변호인>을 텍스트로 하였을 경우 어떻게 통섭하여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교안을 작성할 때 그 교육대상이 초등학교 학생인지, 중고등학교 학생인지, 혹은 전문인인지, 비전문인지에 따라 통섭학문의 난이도를 달리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대상에 따른 영화의 통섭 교육안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영화교육은 창의적 사고를 가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경호, “동아시아 유학적 전통에서 권학의 문제,

-전통의 계승과 변용-”, 유학연구 제24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p.358, 2011.

[2] 최재천, *인문학 콘서트*, 이숲, p.48, 2010.

[3] 김경호, 앞의 논문, p.359.

[4] E. O. Willson,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최재천, 장대익 역, 지식의 대통합, 1998/2005, 사이언스북스, p.40, 1998/2005,

[5] 신기현, “학문의 통섭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적 인식론의 관점에서”, *교육원리 연구*, 제18권, 제1호, p.48, 2013.

[6] 최용찬, “영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불을 찾아서>(1981)에 나타난 문화적 진화와 여성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19호, pp.305-345, 2014.

[7] 김대호, *영화를 활용한 역사 글쓰기 교육*,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8] 김영희, *인도 다문화 음악교육을 위한 영화 활용 및 적용 방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9] 박현동, *영화를 활용한 수학수업이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0] 한귀은, “영화를 통한 타자성 지향의 글쓰기 교육”, *국어교육*, 제135호, pp.305-328, 2011.

[11] 유경수,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영화 <아내가 결혼했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75집, pp.559-582, 2010.

[12] 오진아, 임미혜, “간호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 국외연구논문 분석”,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95-404, 2011.

[13] 오진아, “간호교육에서 영화의 활용에 관한 고찰”,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2호, pp.194-201, 2010.

[14] 육정학, *영화교육에서의 PBL 수업설계 및 운영 모형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5] 서인숙, “에듀테인먼트로서 영화교육모델 고찰: 초, 중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1호, pp.144-153, 2008.

- [16] 최재천, “정책연구의 통섭”, 2014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p.328, 2014.
- [17] 서사분석은 시나리오와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http://nstore.naver.com/movie/detail.nhn>
- [18] 김경애, “토론식 학습법을 원용한 영상 텍스트의 읽기 교육 방안 연구”, 현대영화연구, 제12권, p.94, 2011.
- [19] 조창현, “독일영화 감독 폴커·쉴렌도르프의 ‘정치영화’ 소고 -영상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쉴렌도르프의 영화에 관해-”,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조형미디어학, 제13권, 제2호, p.192, 2010.
- [20]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2.Aufl., Frankfurt a. M., 1992), 하버마스/한상진·박영도 공역, *사실성과 타당성*, 나남출판사, p.345, 2000.
- [21] M. Taooen, “Language, culture and moral education, a Vygotskian perspective,” *Development review*, Vol.17, pp.84-85, 1990.
- [22] S. Rimmon -Kenan,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New Accents: Methuen, pp.61-67, 1983.
- [23] 변종현,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민주시민의 정의 감 형성에 관한 연구”, 국민윤리연구, 제35호, p.172, 1996.
- [24] 이지행, “후기 자본주의 시대 헐리우드 음모론 영화의 정치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3호, p.141, 2014.
- [25] 이영수,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인문학·과학 통섭교육”, 과찬 중앙공무원 교육원 전자자료, p.66, 2013.
- [26] 이종학, 윤마병, “건축을 활용한 초등학교 수학 중심의 융합교육 수업자료 개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제6호, p.500, 2014.
- [27] <http://www.steamer.com/index.htm>
- [28] Keith Cohen, *Film and Fictio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61, 1979.
- [29] 이영수, 앞의 글, p.67.

저 자 소 개

육 정 학(Jung-Hak Yook)

정회원



- 2011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영화평론가협회 기획이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부회장
  - 2012년 3월 ~ 현재 : 한국영화학회 이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앙위원
  - 1998년 3월 ~ 현재 : 영남외국어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영화제작, 영화평론, 영화교육.